

매월 4주는
장년부 교회학교
&
목장 모임의 날입니다.

•경배와찬양 | 다같이

•기 도 | 김인모 장로

•성경봉독 | 고후13:4(신301p)

•설 교 | 김지원 목사

『약함은 하나님의 도구』

•중보기도회 | 다같이

•축 도 | 김지원 목사

- 읍기 -

김지원 목사

< 아둘람 하우스를 위한 기도 >

• 하나님의 일꾼들이 언제라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쉼의 장소가 되도록

• 아둘람 하우스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 6/28(주일)	온세대예배, 목장모임 장년부교회학교	• 국내교회 : 해운중앙교회, 물댄동산교회 능력과평강교회
• 7/5(주일)	맥추감사주일, 성찬예식 7월 당회	• 선교단체협력 : CP, WEC, TMC 봄봄미니스트리
• 7/6(월)~11(토)	다음세대를 위한 특새	• 해외선교 이준기, 이은실(파송-캄보디아) 양 파블루스 선교사(후원-T국)
• 7/12(주일)	정기제직회, 찬양팀 세미나	이상주 선교사(후원-필리핀) 아둘람 하우스(선교사 쉼터)

해2:1~3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목장모임을 시작합니다.

찬 송

기대, 찬송가 384장, 599장 중 택1

설교말씀

“가족을 연결하는 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무엇이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연관된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인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합니다.
첫째,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뜻을 메시지 성경은 “영적 군살”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경주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무거운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에 맞게 튜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되겠습니까? 할 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이 쉽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던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무거워서, 신앙생활이 버겁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맞는 형식으로 삶을 고쳐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가장 최적의 때입니다.(사55:6-7)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 버리고 신앙생활에 맞게 우리의 삶을 튜닝을 잘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삶에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몸에 기생하는 죄”라고 번역했고, 교부 전승 자료에는 “자주 넘어지는 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쉽게 죄에 빠져버리게 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 그 사건, 그 시간, 그 장소만 되면 우리의 죄성이 자극을 받아 쉽게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걸 붙잡고 쥐고 흔들어 버립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그러니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수술하여 고칠 수 있습니다.(히4:12-13)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수술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과 삶의 열매 맺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에 보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을 돕기 위해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이고,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히13:1~3)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똑같이 무겁게 누르는 짐과, 자주 넘어지는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달렸고, 지금은 우리를 보면서 박수치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주간도,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 우리에게 당한 신앙의 경주를 열심을 내어 달려가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대해 보세요.

1.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린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자주 넘어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설교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내용을 나누세요!

1.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에 맞게 튜팅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세요
2. 우리의 삶 안에 사탄에게 자주 빈틈을 내어주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누세요.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김인모 박선희 송경자 엄정임 유명희 이남준 이민주 이선영 이성혁 이연전 이영준 이종선 표영숙
감사헌금	권정혜 권태환 김남표 김성분 김세환 김영대 김은호 김인모 김인수 김종완 김주하 박 준 반명호 송경자 양다운 엄정임 유명희 윤병희 이남준 이민주 이보영 이성혁 이영란 이영선 이은영 이재홍 이정희 이종선 이한주 정창식 정현진 진영림 최라임 최유정 최은소 최진숙 최현우 한상무 황성국 황신숙 황일석 황점욱 황화남
선교헌금	강미애 김성섭 김인모 김재영 김화숙 박성애 박은희 송경자 윤옥자 이남준 이민주 이연전 이영준 이종선 진영림 표영숙 한상무
전도헌금	강미애 권태환 김인모 박성애 송경자 유명희 윤옥자 이민주 이영준 표영숙 한상무
장학헌금	강미애 권태환 김인모 박성애 박은희 윤옥자 이민주 이종선 진영림 한상무
구제헌금	강미애 권태환 김인모 김재영 김화숙 박선희 박성애 유명희 윤옥자 이민주 이연전 한상무
건축헌금	강미애 김성섭 김인모 박선희 박성애 송경자 윤옥자 이민주 이연전 이종선 조정자 진영림 최진숙 표영숙 한상무
주일헌금	장년부

온라인 헌금계좌	헌금하시는 목적에 맞는 계좌에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헌금(십일조, 감사헌금) - 부산은행 113-1212-0651-02 연산교회	
• 특별헌금(전도 선교 구제 장학) - 부산은행 113-1212-0654-01 연산교회	
• 건축헌금 - 부산은행 113-1212-0657-00 연산교회	